

원불교 교화의 양상과 방식*

고 시 용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소태산의 교화 행적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교육·자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교화양상과 방식을 성찰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소태산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 28년간 영산, 변산, 익산을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를 겸비하고 공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였다. 아울러 인재양성과 경전편찬에 주력하면서 교화·교육·자선의 방면에 중점을 두고 교화기반을 마련했다.

원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교화방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화단이다.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을 통해서 교화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근에는 ‘2만 교화단 단장양성 훈련’에 정성을 쏟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교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교구자치제 실시 및 교구별 법인 설립, 공동교화 모색 등이 그것이다. 교당중심의 교화에서 벗어나 교화방식과 대상을 교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군인교화, 경찰교화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도 새롭게 시도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미국에서 개원한 원달마센터를 전초기지로 국외총부를 설치하고 세계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앞으로 원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과 교당의 적정 규모화 등을 통하여 교화성장의 중심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핵심 주제어: 원불교, 소태산, 교화, 교화단, 교구자치제, 원달마센터

* 이 논문은 2011년 9월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에서 주최한 2011년 제1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 언

소태산 대종사(박중빈,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는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¹⁾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하였으며, 그의 생애는 교화(敎化)로 일관되었다. 원불교의 교화는 “소태산의 대각으로 천명된 원불교의 교리를 널리 전달하고 사회에 구현함으로써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일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소태산은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³⁾고 하여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느니라.』⁴⁾고 하여 후래 대중들에게 교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소태산은 물론이요 그의 제자들은 교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왔으며⁵⁾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신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화는 원불교의 최대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미래가 교화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태산이 법을 새로 낸 일과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의 공덕이 같다고 전제할 때, 제생의세(濟生醫世)를 목적하는 후래 대중들이 원력을 세우고 교화하여 공덕을 쌓는 것은 소태산이 법을 새로 낸 공덕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불교 교화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⁶⁾

1)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참조.

2) 이와 같은 교화의 정의는 논자의 개인적 견해이다(참고,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1집, 2005, 267-271쪽 참조). 참고로 교화의 의미를 묻는 설문에 복수 응답한 결과, 원불교 재가교도들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루는 것’(36.7%), ‘타인을 교당으로 인도하는 것’(33.3%)이라는 대답이 많았다(원불교정책연구소, 『재가교도 일반조사 설문 보고서』, 2010, 7쪽 참조).

3) 『대종경』 제15 부속품 15장.

4) 『대종경』 제15 부속품 19장.

5) 소태산이 대각을 이룬 1916년(원기1) 4월 28일 이후에 생긴 교도들은 40여명이었고 그 중에서 신심 있는 표준제자 9명을 선정하여 교화에 전심전력했다.

6) 원불교 교화침체의 원인으로 주로 꼽히는 것은 ‘교화자의 능력과 자질’이다. 교화자의 자질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심·공심과 같은 정신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능력이다. 적지 않은 교무들은 교화현장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교무들은 “교화를 위한 전문적 재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369명, 응답률 51.8%)의 84%가 “교화를 위한 전문적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한내창, 『원불교 교당교화의 실태분석』, 『원불교사상』 제2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157-161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교화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적 재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원기90)부터 재교육의 제도가 도입되어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원기90)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민주택총조사 집계에 따르면 원불교 교도 수는 129,907명이다. 1985년(원기70)의 92,302명, 1995년(원기80)의 86,823명에 각각 비추어 볼 때 부침(浮沈)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교도 수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교화의 성장과 발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척도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약 0.2%에 불과한 교도들이 신앙하는 원불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4대 종교’로 지칭되는 것은 매우 과분하다. 짧은 역사와 적은 교도라는 열세에 처해 있음에도 각고의 노력을 성실히 경주하면서 한국의 신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불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불교의 개교 이래 현재까지 전개되어온 교화방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태산의 교화를 특징짓는 행적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교화는 물론이요 교육·자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원불교의 다양한 교화양상과 방식을 성찰하고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원불교의 교화발전과정을 개관함은 물론이요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교화성장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II. 소태산의 교화행적과 특징

소태산의 생애는 영산시대, 변산시대, 익산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산시대(1891~1919)는 전라남도 영광군 길룡리에서 탄생한 소태산이 대각을 이루고 창교의 기반을 구축한 시대이고, 변산시대(1919~1924)는 일제의 감시와 지목을 피하기 위해 전북 부안군 변산면으로 거처를 옮긴 소태산이 창립인연결속·초기교서집필 등 새 회상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수한 시대이며, 익산시대(1924~1943)는 전북 익산시에 총부를 건설하며 회상을 세상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시대이다. 이처럼 원불교의 창립기반구축과 교화활동은 소태산의 경륜과 실천을 바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각 시대 별로 주목되는 교화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태산의 교화활동이 신종교로서 원불교의 교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원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영산시대의 교화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룬 소태산은 9명의 표준제자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10인 1단의 조단(組團)방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1명의 단장이 9명의 단원들을 지도하고, 9명의 단원들은 다시 새로운 9명을 인도하여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화를 확장해가는 조직이다.

1917년(원기2) 7월 26일 최초로 조직된 교화단의 단장은 소태산이었고 9명의 표준제자들은 단원이 되었다. 그리고 단원들은 매월 10일·20일·30일에 정례모임(例會)을 갖고 『성계명시독(誠誠明示讀)』이라는 임시교재로 지난 열흘간의 신성진퇴와 행위에 대한 선악유무를 반성하고 대조하면서 정신개벽을 위한 훈련에 진력하였다.

나아가 소태산은 1917년(원기2) 8월에 제자들과 함께 ‘저축조합(貯蓄組合)’을 창설하고 “우리가 장차 시방세계를 위하여 함께 큰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 먼저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하여야 하고, 그러기로 하면 어떤 기관과 조약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이제 회상기성의 한 기관으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여 앞일을 준비하려 하노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현재 생활이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 주자.”⁷⁾고 당부하였다.

이에 모든 단원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의복과 음식 등을 절약하여 생긴 대액(代額)을 저축했다. 그리고 여러 명절과 휴일을 줄여 특별노동 수입을 저축하고, 끼니마다 시미(匙米)를 저축하도록 권했다. 저축조합운동은 원불교 교단창립의 경제적 기초 확립에 큰 힘이 되파 동시에 인간개조, 생활개혁, 사회개조 등 신생활운동의 시초가 되었다.⁸⁾

곧이어 소태산과 제자들은 저축조합을 통해 마련된 기금 등을 자본으로 길룡리 앞의 버려진 간척지(干潟地)를 막아 논을 만드는 ‘방언공사(防堰工事)’에 착수했다. 방언공사는 1919년(원기4) 3월에 준공하니 공사기간은 만 1년이요, 간척농토 면적은 26,000평이었다.⁹⁾ 이를 통하여 새 회상 창립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는 물론이요, 정신적인 기초가 확립되었다.

방언공사는 소유지가 전혀 없었던 농민들이 자립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근검절약과 공동노동에 의하여 자금을 마련했고, 상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축적하여 그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간척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민중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소태산의 예지와 탁월한 지도역량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으며, 오늘날 원불교 창립의 경제적, 정신적 기반이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⁰⁾

방언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태산은 9인 제자에게 날짜와 방위를 지정하여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했다. 1919년(원기4) 4월 26일에 시작한 기도는 마음 정결을 위주하고, 계문을 더욱 준수하며, 육신도 자주 목욕재계하고, 기도 당일에는 오후8시 이전에 구간도실(九間道室)¹¹⁾에 모여 소태산의 교시(敎示)를 받은 후, 9시경에 기도장소로 출발해서 10

7) 『대종경』 제1 서품 7장 참조.

8) 『원불교 교사』, 1편 4장(『원불교전서』, 1048-1049쪽) 참조.

9) 『원불교 교사』, 1편 4장(『원불교전서』, 1049-1051쪽) 참조.

10) 신순철,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도서출판 원화, 1991, 81쪽 참조.

시부터 12시 정각까지 기도했다.

8월 11일, 소태산은 단원들에게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온 정성은 심히 장한 바 있으나, 천의(天意)를 움직이는 데는 아직도 그 거리가 먼 듯하니, 이는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념(私念)이 남아 있는 연고라,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 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물음에 단원들은 잠시 비장한 태도를 보이다가 곧 일제히 희생하기로 고백하였다. 소태산은 크게 칭찬하며, 이에 10일간 치재를 더하게 하여, 다음 기도일을 최후 희생일로 정하고, 그 날 기도 장소에 가서 일제히 자결하기로 약속하였다.

8월 21일 밤 8시가 되매, 소태산은 청수를 도실 중앙에 진설하게 하고, 각자 가지고 온 단도(短刀)를 청수상 위에 나열케 했다. 그리고 ‘사무여한(死無餘恨)’이라는 최후 증서를 써서 각각 백지장(白指章)을 찍어 상 위에 올리고, 결사(決死)의 뜻으로 엎드려 심고하게 하였다. 소태산이 증서를 살펴보니, 백지장들이 곧 혈인(血印)으로 변하였다. 소태산은 이를 단원들에게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대들의 일심(一心)에서 나타난 증거라.”하고, 곧 불살라 하늘에 고한 후 “바로 모든 행장을 차리어 기도 장소로 가라.”고 하였다.

11시가 지난 뒤, 소태산은 다시 일제히 중앙봉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고 오라 하였다. 그 후로도 단원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하여 모든 절차에 조금도 해이함이 없더니, 그 해 10월, 소태산의 명에 의하여 해재(解齋)했다. 이것이 백지혈인(白指血印)의 법인기도(法認祈禱)였다. 이 법인기도는 곧 무아 봉공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고, 신성, 단결, 공심을 더욱 굳게 한 새 회상 건설의 일대 정신 작업이었다.¹²⁾ 이를 통하여 새 회상 창립을 위한 진리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산시대의 교화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조단을 통한 교화,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를 통한 교화, 법인기도를 통한 교화가 그것이다. 소태산은 먼저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10인 1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지도와 공의(公議)의 체계를 확립하고 교화단을 점증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저축조합을 통해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자본금을 마련하여 방언공사를 완수함으로써 참된 신심을 키우고 사업성취의 힘을 기르며 복록의 근본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술성의 법을 체득하게 했다. 교단창립의 정신적·경제적 기반을 자력으로 완수한 것이다.¹³⁾ 나아가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서원으로 올린 법인기도를 통해서 백지혈인의 이적을 체험함으로써 진리의 위력과 감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실로 신성, 단결, 공심(公心)으로 교화의 주체를 삼았다고 할 수 있다.

11) 1918년(원기3) 12월, 길룡리 옥너봉 아래에 ‘구간도실’을 준공하여 주경야독하며 방언공사를 진행했다.

12) 『원불교 교사』, 1편 4장(『원불교전서』, 1052-1057쪽) 참조.

13) 『대종경』, 제1 서품 10장 참조.

2. 변산시대의 교화

한편, 이와 같은 소태산의 민중자립의 노력은 민족자주적인 지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곧 식민지 지배체제인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원기4) 3월, 방언공사를 진행하던 소태산은 방언공사의 자금출처 및 독립지사와의 관련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무혐의로 1주일 만에 풀려났다.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의 여파로 일경(日警)이 요시찰 인물의 검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태산은 일경의 감시와 지목을 피하고, 쌓인 피로도 회복하며 새 교단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할 겸 적당한 휴양처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실상초당과 봉래정사를 마련하고 몇몇 제자들과 약 5년 동안 주석하였다.¹⁴⁾

의식주 모든 면에서 어렵고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제자들은 낮에는 산전을 개간하고 밤에는 법설을 들으며 소태산을 가까이 모시는 재미로 살았다. 소태산은 그들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강법논도(講法論道)해 주는 한편,¹⁵⁾ 밖으로 승려들과 교제하며 재래 사원의 법도를 일일이 청취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송규(鼎山, 1900~1962, 이하 ‘정산’이라 칭함)와 송도성(主山, 1907~1946) 형제를 데리고 새 회상의 첫 교서 초안에 분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교·불교·도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였고 교강(敎綱) 제정 및 교서 초안과정에서 참고하였다.

그 결과물로 『조선불교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 등이 차례로 초안되었다. 『조선불교혁신론』은 재래의 불교를 시대에 맞도록 대중교화를 하자는 것이요, 『수양연구요론』은 전문 수양의 방법과 각항 연구 조목을 지정하여 공부인으로 하여금 수양과 연구의 실지경을 밝게 하자는 경전이다. 변산시대에는 초안에만 그쳤고, 그 후 익산시대로 넘어와서 더욱 가다듬고 보완하여 『수양연구요론』은 1927년(원기12) 5월에, 『조선불교혁신론』은 1935년(원기20) 4월에 발간하였다.¹⁶⁾ 그리고 『불법연구회규약』(1924)과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1931) 역시 이 시기에 초안되었다. 아울러, 교강을 주요 내용으로 『보경 육대요령』(1932)과 『보경 삼대요령』(1934)이 발간된 것을 참작하면 이들의 초안시기 역시 변산시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태산은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실천방법의 하나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들었다.¹⁷⁾ 그래서 초안된 교과서로 여러 사람의 근기를 따라 예비훈련을 시험해 보았고, 그 성적이 아주 양호하여 모든 신자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일층 진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¹⁸⁾ 아울러, 각 훈련과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이 정

14) 변산시대에 소태산을 시봉한 주요인물은 약 30명(남자 14명, 여자 13명, 미상 3명)이다.

15) 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교고총간』 제5권, 35쪽) 참조.

16) 이공전, 『봉래제법과 익산총부 건설』, 『원불교70년정신사』(원불교출판사, 1989), 170-171쪽 참조.

17)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참조.

18) 송규, 『불법연구회창건사』(『교고총간』 제5권, 36쪽 참조).

립되기까지 예비훈련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니, 봉래주석기는 예비훈련을 실시한 교단사적 의의를 갖는다. 초안된 교서와 소태산의 변산시대 법설과 생활상을 참조할 때 좌선·염불·성리·의두·일기·회화 등의 훈련과목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소태산은 변산시대를 통하여 제자들과 신앙공동체요, 수행공동체를 이루며 초기공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대각이후 표준제자들과의 생활도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남 영광군은 정산을 제외한 모두의 고향이요, 생활터전이었기에, 변산시대의 공동생활과는 차이가 있다. 송적벽(夏山, 1874~1939), 김남천(角山, 1869~1943) 등이 소태산을 찾아와 간청함으로써 시작된 실상초당·봉래정사에서 공동생활은 영광, 김제, 전주, 익산, 진안은 물론 경북 성주군 등 원근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그를 찾아온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소태산은 자신을 찾아 봉래산에 입산한 제자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교화하였다. 교단을 창립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 수행된 것이다. 이것이 변산시대의 교화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의의이다.

따라서 변산시대의 교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교강 제정, 초기교서 초안, 예비훈련실시, 창립인연결속, 회상공개준비가 그것이다. 일원상·사은·사요·삼학·팔조로 구성된 원불교의 교리 강령을 체계화하고 교서를 직접 집필하여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시도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익산·진안·전주·김제·정읍·서울 방면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창립인연들을 결속하고²⁰⁾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한편 총부 건설의 기지(현 전북 익산시 신흥동 344-2)를 확정하는 등 회상공개의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다.

3. 익산시대의 교화

1924년(원기9) 6월 1일, 전북 익산 보광사에서 열린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불법연구회규약』이 축조(逐條) 통과됨으로써 소태산은 총재에 추대되었다. 새 회상을 공식적으로 운영규정에 근거한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불법연구회규약』에는 그 유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매일 조합원이 박중빈 선생의 지휘를 받아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이 되면 불법의 질리(質理)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음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어, 모든 일에 의뢰

19) 현행 원불교 훈련법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정기훈련법은 염불·좌선·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일기·상시일기·주의·조행 등 11과목이다(『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훈련법 참조).

20) 변산시대에 입문한 소태산의 제자들은 56명(남자 28명, 여자 28명)이다(교화부, 『입교원명부』 1代男 4-1, 17-44쪽 / 1代女 8-1, 7-34쪽 참조).

가 끊어지고 자유와 자재(自在)를 세우며 부처님의 이르신 복족(福足)의 근원과 혜족(慧足)의 근원을 해리(解理)하여, 모든 사람의 이목(耳目)을 열어 알게 함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상종됨에 자연 불법연구회가 성립되었다.²¹⁾

그리고 불법연구회에 7개부(部)를 설치하고 업무를 분장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유시무종(有始無終)이 되지 않도록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되어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다. 각 부의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무부(庶務部): 직인(職印)을 보관하며, 사회(社會)를 응접하며, 회금을 수입하여 각 방면에 지출하며, 다른 부에 관계치 않는 각종 사무를 처리함.
2. 교무부(敎務部): 본회의 취지·규약·경전을 가르쳐 연습시키며, 동하 6개월에 공부인의 일기를 감정(勘定)하며, 연설과 산술을 가르치며, 필요한 역사를 강습(講習)하기로 함.
3. 연구부(研究部):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여 정신을 수양케 하며, 각종 문목(問目)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한 문목을 감정하여 주며, 그 문목으로 강연하여 연마하기로 함.
4. 상조조합부(相助組合部): 조합금을 징수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자본을 확장(擴昌)하여 장래에 조합원의 공부시 비용에 곤란함이 없도록 하며, 학교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녀를 교육하기로 함. 단, 자본금이 확장되기 이전과 조합 성립 한도가 되기 전에는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함.
5. 농업부(農業部): 농업에 근무하며 농업원의 매년 수입·지출을 대조하여 상조조합에 저축하며 농무인(農務人) 자본 없는 자를 보호하기로 함.
6. 식사부(食事部): 7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식사를 공급함.
7. 세탁부(洗濯部): 7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의복을 제조, 세탁하기로 함.²²⁾

불법연구회의 목적은 ‘정신을 수양하며, 사리를 연구하며, 작업을 취사하기 위하여 신·분·의·성을 세우고, 불신·탐욕·나·우를 제거하기’이다. 소정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고 십계문과 삼강령 팔조목(현행 삼학·팔조)과 술성요론과 재가응용 주의법과 출가공부인 책임사항을 전수하였다. 또한 불법연구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총재 1인, 회장 1인, 부장 7인, 평의원 약간인, 간사 약간인’을 임원으로 두었다. 그 가운데 부장 및 간사는 ‘출가회원(出家會員)’ 내에서 선정이 되어 공사에 전력하며 자기의 임무를 능히 처리할 만한 자로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재와 회장이 임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출가회원’이라는 표현이다. 오늘날 원불교의 출가교도들을 지칭하는 ‘전무출신’ 또는 ‘교무’라는 용어 이전에 ‘출가회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불법연구회의 공부와 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예컨대 매년 겨울과 여름 각 3개월을 선원에 나와서 공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출가공부인의 책임’을 세부적으로

21) 『불법연구회규약』(재판), 1927, 1~2쪽 참조.

22) 『불법연구회규약』(재판), 1927, 6~8쪽 참조.

명시함으로써 공부를 위주로 하는 출가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더 있다. 다름이 아니라 ‘제20조 회원제명(除名)’에 관한 사항으로 “회비 1개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예회에 불참한 자, 본회의 체면을 오손케 한 자, 본 취지와 규약을 3차 위반한 자”에 각각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의 가결에 의하여 제명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²³⁾ 엄격한 회원 관리를 통하여 불법연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교화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본격적인 교화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한 결과 1928년(원기13) 교도상황은 438명(남자 176명, 여자 262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린 3년 전의 교도상황인 130여명에 비하면 성장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열흘마다 정례법회를 오전에 개최하여 신앙과 수행을 다지고 오후에는 단회를 진행하여 교단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단합을 도모했다. 당시 목적사업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과 농업활동을 통한 교단유지 및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모색이었다. 특히 정례법회에는 동일한 제목으로 3~4명의 연사를 등장시켜서 교리에 대한 연구력을 얻게 하고 신념체계를 굳건하게 다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삼았고, 단회에서는 각종 제안을 토론하고 종합하여 결의하는 창의적 제안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서로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교단운영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신정예법(新定禮法)²⁴⁾을 제정하여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1920~1930년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형식화된 전통예법을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예전』(1935)을 편수하여 신정예법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절약된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익과 보람을 가져오게 했다.²⁵⁾ 허례허식을 규제하자는 현실적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예법을 실행하여 절약된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은 인간개조, 생활개혁, 사회개조 등을 가능케 하는 정신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교화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해 있는 이들부터 먼저 실행하라.』²⁶⁾는 부촉(附囑)과 스스로 모범을 보인 일²⁷⁾은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3) 『불법연구회규약』(재판), 1927, 14쪽.

24) 소태산은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로워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방면에도 공연한 낭비가 되어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있음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1926년(원기11) 2월에 신정의례(新定儀禮)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출생, 성년, 혼인, 상장, 제사에 대한 혁신예법을 비롯하여 공동생일기념, 명절기념, 공동선조기념, 환세기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5)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줄고,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종교연구』 제29집, 한국종교학회, 2002, 283-305쪽)을 참조할 것.

26) 『원불교교사』 제2권 제2장 3.의례 제도의 개혁과 사기념례(『원불교전서』, 1078쪽).

27) 소태산은 셋째 아들 박광진의 출생(1926년 12월)과 장녀 박길선의 결혼(1929년 12월)을 신정예법에 준하여 실행했다.

1940년(원기25) 4월에 열린 총회에서 보고한 교화상황은 5,954명의 교도와 80여명의 전무출신, 23개소의 교당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교화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일제의 탄압과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총부에 이리경찰서 북일주재소 설치, 정례법회에 경찰의 상시배석 감시, 교화전문지 『회보』의 정간, 교육·자선을 위한 산하기관 신설신청 불인가 등은 소태산의 교화사업을 억압하고 제약했다. 그러한 와중에도 소태산은 『불교정진』(1943)의 편수에 전념하고 계송과 동정간 불리선법(動靜間 不離禪法), 생사인과에 대한 법설 등을 제자들에게 두루 전하면서 교화에 정성을 쏟았으며 1943년(원기28) 6월 1일 거연히 열반에 들었다. 이로써 소태산의 직접적인 교화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오늘날 원불교의 교화로 계승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중심으로 익산시대의 교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개적인 단체결성, 체계적인 조직운영, 법회·단회를 통한 공부풍토 조성, 신정예법을 통한 사회교화 등이 그것이다. 영산시대와 변산시대는 ‘소태산에 대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소태산의 개인적인 교화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었다면, 익산시대에는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위시하여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교화활동을 강력히 전개했다. 7부를 근간으로 하는 신앙공동체를 결성하고 법회와 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법사도(傳法使徒)를 육성함과 동시에 교화의 대상을 사회로 확산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아울러 현행 『정진』(1962)의 저본이 되는 『불교정진』을 발행함으로써 소태산 열반 이후에도 정신개벽의 기치를 들고 흔들림 없이 교화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Ⅲ. 원불교의 주요 교화방식과 과제

소태산 열반 후 종통은 정산으로 계승되었다. 정산은 전채동포구호사업²⁸⁾을 전개하고 『건국론』(1945년 10월)을 발행하여 국가와 민족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1948년(원기33) ‘원불교’로 정식교명을 선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발한 교화를 전개했다. 1963년(원기48)부터 ‘교화 3대 목표’²⁹⁾를 설정하고 거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1971년(원기56)까지 86,014명의 교도, 1,687개의 교화단, 108개소의 교당이 증가하는 등 교세확장에 전기를 지었다.³⁰⁾ 규모면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원불교의

28) 1945년(원기30) 9월, 이리역과 서울역을 비롯하여 부산, 전주 등지에 ‘귀환 전채동포 구호소’를 설치하였다. 서울에서는 6개월 반 동안, 이리에서는 13개월 반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방황하는 전채동포들에게 식사 의복의 공급과 숙소 안내, 응급 치료와 분만 보조 및 사망자 치상(治喪) 등으로 자비의 손길을 뻗었다. 4개 지구의 구호소에서 구호 받은 동포 수는 80여만 명에 이른다.

29) 연원 달기·교화단 불리기·연원교당 만들기이다. 연원 달기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연원을 달자는 것이고, 교화단 불리기는 한 단에서 새로 한 단 이상을 불리자는 것이며, 연원교당 만들기는 한 교당에서 한 교당 이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성장과 발전은 이를 기반으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최근 원불교 교화에 있어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주요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화단 조직과 교화단장 양성훈련

원불교의 교화방식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교화단 조직이다. 전 교단적으로 교화단 조직결성이라는 일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교화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튼튼한 교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교화 조직이 바로 교화단이다. 교화단의 기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소태산의 교화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하였다. 소태산은 10인1단의 조단법을 제정하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簡易)한 조직이니라.」³¹⁾고 설명했다. 이 원리에 의해서 교화의 중심은 소태산으로 비롯하여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단원들로 점차 확산된다.

따라서 원불교 교화의 성장은 단원들의 성장을 최우선적인 전제조건으로 한다. 교화단만 조직된다고 해서 교화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불교 교법을 신앙하고 수행함으로써 정신을 개벽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양성하면 교화단의 성장과 증가는 그 부수적인 성과로 나타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 방면으로 제일 우월한 자를 양성하는 것’³²⁾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교화단 조직을 통한 교화의 성패는 교화단장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아가 능력을 가진 단장이 9인의 단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교화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결과를 성취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원불교는 각 교당의 규모와 체계가 아직 미흡한 관계로 신입교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도들은 원불교의 교리를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교화방법에 대한 자료와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교도들 대부분은 교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교화연구소(소장: 최정풍)는 교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교화방법을 교육훈련하기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재가교도들을 교화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단장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30) 교화 3대 목표가 ‘불리기’와 ‘늘리기’ 위주였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질적 성장을 위해서 ‘범위향상운동’과 ‘정신적 보본운동’ 등을 함께 전개했다.

31) 『대종경』 제1 서품 5장 참조.

32)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1931.

여 ‘2만 교화단장 양성’³³⁾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교화단을 교단의 핵심조직으로 하고, 교화단장을 교단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교화체질 개선과 교화의 내실강화로 원불교 100년대를 열어갈 기틀을 마련하고자 태동된 2만 교화단 단장 양성과 2만 교화단 결성정책이 일선 교화현장에서 실현되어가고 있다.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한 2만 교화단 단장 양성 훈련과정은 2010년(원기95)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훈련과 온·오프라인 훈련을 병행하는 새로운 훈련형태로 수정 보완되었다. 단장양성 훈련과정은 초급·중급·중급심화·고급훈련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장은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화단장 양성과정에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³⁴⁾을 조목별로 공부하고 실습하는 훈련을 통해서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자기주도적 훈련, 체험중심 실습훈련, 문제해결중심 훈련의 세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교화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원기96) 1월부터 본격적으로 38개 지구(地區)³⁵⁾에서 단장 초급과 중급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훈련은 ‘교화단 큰학교’(www.wonedu.or.kr)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먼저 초급훈련은 앞으로 단장이 될 예비단장을 대상으로 1회당 3시간씩 총 3회로 진행되며, 2회의 오프라인 훈련과 1회의 온라인 훈련으로 실시된다. 중급훈련은 현직 단장을 대상으로 1회당 3시간씩 총 10회로 진행되고, 홀수 회기는 오프라인 훈련으로 짝수회기는 온라인 훈련으로 진행되며, 12월 18일 수료식과 아울러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중급 단장훈련을 이수한 단장들에게는 중급 심화과정과 고급훈련과정이 진행될 것이다.³⁶⁾

2. 교구자치제 추진과 공동교화 모색

원불교의 교구자치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더불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1995년(원기80)에 시행되었다.³⁷⁾ 그동안 원불교는 중앙의 강력한 지도와 권위를 대

33) ‘교화대불공(教化大佛供)’은 경산(耕山) 종법사가 천명한 교단 5대 경륜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불교에서는 교화단 중심의 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2만 교화단 단장 양성’을 꼽을 수 있다. 2만 명의 교화단장을 양성하여 장차 10인 1단의 교화단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약 20만 명의 교도들이 원불교의 교리로 일상 속에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낙원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34)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참조.

35) 원불교의 각 교구 산하에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으로서 주로 교화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공동교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36) 『원광』 제445호, 2011년 9월호, 월간 원광사, 112-113쪽 참조.

부분 신앙적으로 수용하면서 중앙총부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방화시대의 성숙에 따른 교구 자생력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여 교화구조를 쇄신하며 집권과 분권의 조화로 교화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교구자체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10년(원기95)부터는 교구자치제 확립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기존의 체제와는 달리 교구법인 설립, 교구자치력 확립, 권한이양 및 조직정비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대전충남·부산·서울교구가 법인설립을 완료하였고, 경기인천·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교구가 법인설립을 진행해 가고 있다. 아울러, 제주·영광·강원·충북교구도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구편제 조정이나 교구 법인 업무를 큰 교구와 통합하는 형태 등의 자치제 방향을 모색 중이다. 2012년(원기97)까지 교구자치력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산권, 교화행정권, 인사권 등의 권한이양에 대해 교구장 회의 및 사무국장 연수, 추진팀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교구자치제의 핵심은 현장 교화의 활성화에 있다. 교구자치제 확립으로 현장중심의 신속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재가·출가가 지혜를 모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구운영을 통해 생기 있고 역동적인 교화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교정원³⁸⁾ 조직 개편 등 조직정비를 통해서 교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정원을 비롯한 원불교 핵심기구가 전북 익산에 위치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합한 교화활동을 정책적으로 전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불교 교당은 교화의 중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밀접하게 동화하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이웃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화의 본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교화방식이 ‘지구중심의 공동 교화’이다. 지구 중심의 공동 교화는 각 교당별로 이루어지는 천편일률적인 소규모 교화에서 벗어나 교당과 기관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교화력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결합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도되었다. 일정 지역을 담당하기에 알맞은 정도의 교당과 기관들을 10개 내외의 단위로 편성하여 함께 교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화를 위해서 교화계획의 수립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그 단위 안에서는 수평적 의사결정과 탄력적 인력운용, 공동교화, 공동연구, 공동학습, 공동훈련, 공동사회활동을 통해서 공동으로 교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³⁹⁾

37) 2011년(원기96) 현재 강원, 경남, 경기·인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 서울, 영광, 전북, 제주, 중앙, 충북, 군중, 원산, 평양, 미주동부, 미주서부, 유럽, 일본, 중국 등 국내 16개, 해외 5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38) 교정원은 원불교의 중앙집행기관으로서 기획실, 정보전산실 및 교화훈련부, 총무부, 재정산업부, 교육부, 공익복지부, 문화사회부, 국제부가 조직되어 있다. 교화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정원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문화사회부와 교화훈련부 산하 청소년국이 서울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 교화 방식과 대상의 다양화

원불교 교화의 중심지는 교당⁴⁰⁾이다. 따라서 그동안 원불교는 우리나라의 각 시·군·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교당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교화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11년(원기96) 3월 현재 507개 교당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당의 규모와 재정이 영세함으로써 원활한 교당 운영과 교화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교당의 양적 증가가 교화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로 직결되었다는 평가는 자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당불리기 운동의 전개로 해마다 교당은 증가했지만 법회출석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당의 신설로 인해 교도들이 분리되어 실제적인 교화발전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였다. 원불교의 인지도가 미미한 상태⁴¹⁾에서 적정 규모의 교당을 인위적으로 분열하여 신설함으로써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영세한 규모로 개설된 교당은 상당기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교화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는 경우도 생겨났다.

따라서 교당중심의 교화, 법회출석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교도중심의 교화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⁴²⁾ 교화의 방식과 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⁴³⁾ 예컨대 2010(원기95)과 2011년(원기96)에 실시한 ‘원불교 사회여론조사’⁴⁴⁾에 의하면 원불교를 알게 된 경로와 매체를 질문한 결과, 대중매체(26.6%)와 건물 및 시설(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

39) 지구공동체의 사례로 전북 고창지구, 군산지구, 남원지구, 남중지구와 전남 영광지구, 서울 종로지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교당중심, 교육중심, 복지중심, 문화중심, 산업중심 등 특정분야 중심형이나 멀티(Multi)교화 지향형의 공동체를 각 지구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

40) 교당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고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수행을 지도하며, 교화·훈련·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지이다.

41) 2010년(원기95) 3월 8~11일과 2011년(원기96) 3월 8~11일 (주)한국리서치 전화조사팀에서 2회에 걸쳐 원불교 사회여론조사(전국 7개 권역, 유효표본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를 실시했다. 2011년(원기96)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원불교 인지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만 했다. 51%, 전혀 모른다 27.8%, 조금 알고 있다 18.7%, 잘 알고 있다 2.5%”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불교 호감도에 대해서는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1.6%에 불과하다. “모르겠다 48.1%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3.8%”로 응답한 것을 볼 때 81.9%가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실행부서에서는 교단에 대한 비호감을 원인 분석할 필요가 있다(『원기96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1, 9쪽 및 16-17쪽 참조 / 『원불교신문』 제1568호, 2011년 5월 20일 참조).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불교 교화 방식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교화이다. 모든 교도들로 하여금 가족교화에 대한 서원을 세우도록 하고, 교당에서는 신입교도용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잠재교도들을 교화해야 한다.

43) 물론 원불교는 교당을 위주로 하는 교화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통일·환경·종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44) 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96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1, 10-11쪽 참조.

라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당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원불교를 상징하는 통일된 시각적 요소들을 개발 설치함으로써 종교적 정체성(RI: Religious Identity) 구축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교당과 기관을 지역 활동의 중심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략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교도 대중들이 흥미롭게 원불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종교색을 배제한 영성계발 및 정신적 휴식 사이트로 우회적인 교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억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광활하고 편견 없는 인터넷 공간을 마음공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원불교에 대한 한국사회 일반 대중들은 ‘불교의 한 종파’(48.4%)로 보는 입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원불교의 정체성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원불교 교세가 가장 강한 전북지역에서조차 ‘새 종교’(14.3%), ‘민족종교’(10.7%), 불교종파(46.4%), 정체불명(7.1%), ‘모름/무응답’(16.1%)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교화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 교화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⁴⁵⁾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낼 핵심사항을 제대로 요약하여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2006년(원기91)에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로 지정된 원불교는 2명의 군종장교가 임관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육군논산훈련소, 육군부사관학교, 5사단, 53사단, 삼군사령부, 상무대 보병학교 등에 교당을 신축하여 군인교화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등 군인양성기관과 교당 인근 부대에 여러 명의 교무들이 민간인 성직자로 출입하며 출장법회를 개설함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해가는 과학문명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장병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해양경찰학교에도 교당을 마련(2011. 7. 3)하고 경찰교화의 새로운 문호도 열었다. 하지만 앞으로 오랜 기간 인적·물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국외총부 설치와 세계교화

그동안 원불교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해외 5개 교구 21개국에 60개 교당과 12개 기관, 12개 부설기관에 130여명의 교

45) 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96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1, 12~13쪽 참조.

무를 파견했다. 현재 영어를 비롯, 23개 외국어로 원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종교간 대화와 협력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국제연합 비정부단체(UN 종교NGO) ·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 · 세계연방종교자협의회(WAWF) · 세계불교도회(WFB) · 국제자유종교연맹(IARF) · 국제종교연합선도기구(URI) · 이해의 성당(TOU) 등에 정식회원 및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국제간 종교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 뉴욕주 허드슨강 상류 지역에 ‘원달마센터(Won Dharma Center, www.wondharmacenter.org)’를 건설하는 등 세계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원기96) 10월 2일 개원한 원달마센터는 51만㎡의 종교부지로 인가를 얻어 2970㎡(900평) 규모의 친환경 건축물 5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각 건축물은 법도량(신앙 · 수행공동체), 생활훈련도량(종교공동체), 인재양성도량, 종교연합운동건설도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규모 명상 홀과 게스트 하우스도 배치되어 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제와 제도 혁신, 서구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화방식과 종교생활 문화 개발, 영성교육훈련 도량건설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운영함으로써 원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국외총부⁴⁶⁾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원기88)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를 필라델피아에 개교하여 현지 교화에 적합한 교무를 양성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된 교무들이 중심이 되어 원불교 초기교단 공동체를 재현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영성을 깨우는 가르침을 전하는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원불교 사상은 소태산의 일원주의로 비롯되어 정산의 삼동윤리⁴⁷⁾로 구체화되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기치를 들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에서 교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무의 13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주지역에 치중하여 배치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유럽 및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한 전문 교화자를 더욱 많이 배출하고 파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불교의 각종 의식이 한국은 물론이요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와 접목되어 대중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교무가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세계교화를 위한 교화자 양성을 위해 예비교무들의 일부를 해마다 세계 각국으로 유학 또는 파견함으로써 정작 국내 교화를 담당할 교무가 부족해지고 있는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교화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교화자 배출방법을 개방적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원불교 교화사업에 전문하는 인재를 양성

46) 『원불교교헌』, 제5장 국외총부, 제79~81조 참조.

47) 『법어』, 제13 도운편 34-37장, 제15 유측편 37-38장 참조.

하는 교육과정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또는 영산선학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외총부 설치에 따른 본격적인 세계교화를 펼칠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과제에 봉착해있는 것이다.

V. 결 어

지금까지 원불교 교화의 양상과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국의 신종교로서 원불교가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원불교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최근 한국의 4대 종교로 급부상하였지만 인지도와 호감도, 영향력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으며 그다지 관심도 없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원불교는 교조 소태산을 위시하여 역대 종법사의 경륜 아래 출가교도와 재가교도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해서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화”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오고 있다. 대각을 이룬 후 소태산의 생애는 교화로 귀결되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제약 속에서 28년간 영산, 변산, 익산을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를 검비하고 공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인재양성과 경전편찬에 소태산이 직접 주력하면서 교화·교육·자선의 방면에 중점으로 두고 전개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교화기반을 마련했다.

그 중에서 원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교화방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화단이다.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을 통해서 교화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근에는 ‘2만 교화단 단장양성 훈련’에 정성을 쏟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교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교구자치제 실시 및 교구별 법인 설립, 공동교화 모색 등이 그것이다. 교당중심의 교화에서 벗어나 교화방식과 대상을 교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군인교화, 경찰교화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도 새롭게 시도하고 있으며, 2011년(원기96) 10월 미국에서 개원한 원달마센터를 전초기지로 국외총부를 설치하고 세계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야말로 96년의 역사를 교화일념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개교(開敎) 100년을 앞둔 원불교의 미래는 교화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보장될 것이다. 기존의 노력이 결코 나태하지 않았음에도 교도수의 증가가 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종교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 “교리에 대한 신뢰(35.1%)”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⁴⁸⁾ 원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교당의 적

정 규모화 등을 통하여 교화성장의 중심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모쪼록 본 연구가 원불교 교화의 활로를 모색하고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제도사업에 일조(一助)가 되길 바란다.

48) 원불교 정책연구소, 『원기95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0, 7쪽 참조 .

참고문헌

- 원불교 정화사 편,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2009.
- 『불법연구회규약』(재판), 1927.
-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1931.
- 송 규, 『불법연구회창건사』.
- 송도성, 『대종사 약전(略傳)』, 수고본(手稿本).
- 『원불교교헌』, 1999.
- 원불교 교화부, 『입교원명부』 1대(남) 4-1.
- 원불교 교화부, 『입교원명부』 1대(여) 8-1.
- 서경전, 『교화학』, 원광대학교출판국, 2001.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실천교학연구원 편, 『현장교화론』, 원불교출판사, 2009.
- 고시용,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 김 현, 「원불교 사회교화의 이념과 방향」, 『원불교사상』, 제2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6.
- 김영희, 「원불교의 교화방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고찰」, 『원불교사상』, 제10·1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 박광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이웃종교의 대처방안과 원불교의 교화정책」, 『원불교사상』, 제2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2.
- 박윤철, 「21세기 교화전략에 대한 제언」, 『분석과 전망』, 제15호, 1996.
- 백준흠, 「원불교 교당 교화구조 개선방안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8.
- _____, 「원불교 교화단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4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 _____, 「종교의 세속화와 원불교의 교화방향」, 『원불교사상』, 제19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5.
- 서경전, 「교화개념의 새로운 모색」, 『원불교학』, 제1집, 한국원불교학회, 1996.
- _____, 「교화사」, 『원불교70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 _____, 「주5일 근무제와 원불교 교화방법」, 『원불교학』, 제9집, 한국원불교학회, 2003.
- 신순철, 「1918년 길룡리 방언조합의 간척공사 연구」,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도서출판 원화, 1991.
- _____, 「불법연구회창건사의 성격」,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양은용, 「원불교의 일본포교 현상과 전망」, 『일본근대학연구』, 제1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 이공전, 「봉래제법과 익산총부 건설」, 『원불교70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 이성택, 「개교 77년간의 교화분석과 과제」, 『원불교사상』, 제16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3.

장하열, 「원불교 군 교화전략의 새로운 모색」,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5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최문채, 「마케팅원리를 통한 교화전략 모색」, 『원불교사상』, 제2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한내창, 「원불교 교당교화의 실태분석」, 『원불교사상』, 제2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원광』, 제445호, 월간 원광사, 2011년 9월호.

원불교 정책연구소, 『원기95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0.

원불교 정책연구소, 『원기96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2011.

원고접수 : 2011년 11월 14일 1차 심사 : 12월 6일 게재승인일 :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 고시용

① 전공 : 원불교학 / 소속 : 원광대학교 조교수

② 관심영역 : 한국종교,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③ 주요논저 : 「원불교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 「불교정전의 성립과 특징」, 「정전의 결집과 교리의 체계화」, 「원불교대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원불교 설교에 나타난 마음공부」,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교리형성과 도교사상」,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예비전무출신 교육교재 개발」,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개발」, 「다문화사회와 원불교 종교교육」, 『클릭 원불교』(공저 2), 『종교(원불교)』(공저)

④ E-mail : kwgksy@wku.ac.kr

Abstract

The Condition and Method of *Won*-Buddhist Edification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proffer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edification methods used by *Won*-Buddhism with a special focus on classifying and organizing Sotaesan's past edification by examining the various condition and methods in areas such as education and charity, And finally suggesting tasks for the future.

Despite the constraints placed on Korea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for 28 years, Sotaesan managed to overcome obstacles to organize and create a system centering on Youngsan, Byeonsan, and Iksan while publically organizing an association in order to train youth and compile the main scriptures. Without wavering in the harsh conditions, Sotaesan laid down the groundwork for edification, placing priority on the fields of edification, education and charity. Among them, the most characteristic edification method of *Won*-Buddhism worth mentioning is precisely the 'edification group.' It is expected tha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ditions of edification will develop through the ten-member unit therefore in recent years the order has put forth efforts to run a 'Retreat to Train Twenty thousand Edification Group Leaders.' In addi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organize a system, which develops edification that contributes to local residents and the local community. In other words, seeking joint edification by implementing an autonomous diocese as well as establishing a corporate branch.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edification and diverge from temple-centered edification, there have been many new attempts to develop army edification, police force edification and so on.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n October 2011, the first overseas headquarters, the *Won* Dharma Center, opened in the U.S. as a way to spur international edifica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extremely important to develop edification through appropriate scales and efforts that present methods to resolve societal issues based on the *Won*-Buddhist doctrine.

Key words: Won-Buddhism, Sotaesan, Edification, Edification Group, Autonomous Diocese, Won Dharma Center